

유스토리, 221일간의 이야기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수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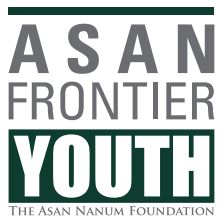
강성희 / 김민경 / 김보경 / 김수현 / 김예림 / 김이레 / 김지은 / 김해랑 / 박경화 / 박민석 / 박상미 / 박상준 /
박해주 / 서현아 / 송근우 / 안예은 / 오진의 / 유명환 / 이동은 / 이재정 / 이지연 / 이지혜 /
임경희 / 장자연 / 정재은 / 정희남 / 조성우 / 하지연 / 현남규 / 황다현



ASAN FRONTIER YOUTH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함께 배우고 실천했던,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 이야기



유스토리, 221일간의 이야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04
협력기관 소개	06

함께 그리고 기억

사전교육	09
입단식	10
워크숍	11
정기 교육 _ 소셜섹터맵핑	12
정기 교육 _ 사회혁신 프로젝트	13
글로벌 스터디	14
소모임 / 송년회	16
자치위원회	17

너와 나의 이야기

단원 수기집	18
--------	----

재단 소개

아산나눔재단	80
--------	----

여러분의 Big Plan은 무엇인가요?



PROGRAM

아산 프론티어 유스(Asan Frontier Youth)는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NGO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와 같이 현장과 이론을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들의 비영리 분야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단원들은 비영리 분야 전반에 대한 관점을 확립해 나갑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비영리 분야 전문가와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대학생 대상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NGO 인턴십

NGO 인턴십은 국내 비영리 기관에서 5개월 동안 현장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복지, 국제구호,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서 유급으로 근무하며,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향상해 나가며, 동시에 현장을 이해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와의 꾸준한 1:1 진로 멘토링을 통해 본인의 진로 설계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5개월
(주 40시간 기준)



활동비
지급



1:1 멘토링



Intro
준비



Discovery
이해



Project
실행

임팩트 교육

임팩트 교육은 비영리 분야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특강, 현장방문, 케이스스터디 등을 통해 비영리 분야를 이끄는 리더와 조직을 만나고 이들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공부합니다. 배움을 바탕으로 직접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NGO, 사회적기업, CSR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글로벌 스터디

글로벌 스터디는 새롭고 혁신적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외 기관을 탐방하는 팀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팀원들은 토론을 통해 방문하고 싶은 기관을 찾고,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조율을 통해 방문 일정을 계획합니다. 이후 해외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 면담, 현지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발견한 Insight는 임팩트 교육에서 진행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보고서로 작성되어 대한민국 소셜섹터 발전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9박 10일 이내 탐방
팀 프로젝트 형식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협력기관 소개

1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한국재활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사회복지관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에서 지역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적인 복지관입니다.

3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해 긴급구조, 법률지원, 심리·의료지원 등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합니다.



4 동방사회복지회

종합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아동, 장애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2 늘푸른노인복지관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들이 밝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상담, 평생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라파엘인터내셔널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세계 이웃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확보하고, 현지 의료자립화를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해외의료 봉사단체입니다.



6 비전케어



세계실명예방기구(IAPB)와 함께 실명률이 높은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무료 진료와 백내장 무료 수술을 지원하며 시각장애로 고통받는 이를 돕는 국제실명구호단체입니다.

7 사회연대은행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금융 기관으로서, 민간협력력을 통해 저소득층, 사회적기업 등에 400여 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8 서울YWCA



애국계몽, 여성인권, 청소년, 소비자, 환경, 복지와 나눔, 평화 운동을 펼치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9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지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10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으로서, 통합적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복지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13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 제품 판매와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을 통해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1 아름다운가게

전국 120여개의 재사용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및 공익상품 유통지원, 업사이클 브랜드 판매 등 우리 사회의 친환경적 변화와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합니다.



12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모금기관으로, 저소득층 자립,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공정한 배분을 실천합니다.



14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서울와우북페스티벌과 같은 책문화 사업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고, 미래 출판산업 및 예술문화산업의 토대를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 우리주간보호센터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35세에서 55세의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 인천문화재단



인천의 문화예술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북한문화예술공간 '인천 아트플랫폼' 등을 운영하며 국내외 문화예술인과 단체, 문화기반 시설, 문화유관기관 등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습니다.

19 통일미디어



미디어를 통해 통일시대 기반조성을 하는 통일부등록 비영리 단체로, 한반도와 세계소식을 전하는 뉴스, 민주시민 교육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북한주민들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17 코피온

매 해 약 1,500명의 해외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개발협력단체입니다.



18 태화복지재단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전국 41개 사회복지시설 및 캄보디아·라오스 지역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실천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푸른나무청재단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소년폭력 예방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청소년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21 하트하트재단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 보호, 권리 옹호 사업을 진행하며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같은 특화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22 한국YWCA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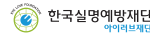
전국 45개 YWCA 9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여성시민단체로서 애국계몽운동·여성인권운동·사회복지운동·환경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기독교여성운동을 전개하는 초교파적인 여성단체입니다.

23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증진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사회복지법인 건전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1,801개 사회복지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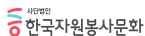
24 한국실명예방재단



시력보호와 실명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눈 수술비 지원, 정밀 검진, 저시력 재활사업 등 취약 아동부터 노인까지 소외된 사람들의 눈 건강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25 한국자원봉사문화

민간영역에서 20년 간 자원봉사 관련 교육·연구 등을 진행한 대표 민간 자원봉사전문기관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선도합니다.



26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전국 245개의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 아카이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27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문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28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9 한림화상재단

화상 환자를 위한 의료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 화상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며, 화상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한 복지기반사업을 수행합니다.



30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등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합니다.

함께
그리고
기록

사전 교육

보람찬 식당 봉사활동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디자인 씽킹, 아이스브레이킹 시간들은 비영리를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따뜻한 가슴과 새로운 생각을 주었습니다. 모두 처음 만났지만 사전교육 시간을 통해 점차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항상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진의 단원





입단식

단원임을 본격적으로 선언하는 입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원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한 사람씩 포부를 이야기하며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덤으로 1기 단원들로부터 받은 깜짝 선물이 있었기에 떨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현 단원





워크숍

우리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 마시멜로챌린지, 체육 대회, 우리들의 사연을 풀어낸 토크쇼 등 함께 웃으며 서로의 기운을 주고 받았습니다.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그때가 그리워요!

김보경 단원



정기 교육 소셜섹터맵핑

비영리 분야를 알 수 있어 가장 기대했던 정기교육 시간! 연사님들은 세상에 대해 따뜻한 고민을 하고, 'Why'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그 답을 찾아나가는 분들이었어요. 소셜섹터맵핑을 위해 찾아간 현장에서는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모두 행복해 보이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단원들과 함께 그 가치를 경험하며 배워 나가는 과정이 참 소중했어요.

김이레 단원





정기 교육
사회혁신
프로젝트

조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 방안까지 고민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세션마다 조원들과의 논의 과정과 다른 조의 발표를 통해 사회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세션이 끝난 후 기록했던 리플렉션 메모는 일과 사람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지연 단원



글로벌 스터디

사회혁신 프로젝트 과정으로 간 글로벌스터디라서 기대도,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았어요. 비영리 기관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주제와 무관한 혁신 기관을 통해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덤으로 문화체험으로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다른 팀원들도 만나는 즐거운 에피소드들도 많았어요.

서현아 단원





정말 다사다난했던 글로벌스터디! 저희 조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하며 주제에 대한 다양한 Insight들을 얻고! 맛있는 음식들도 배불리 먹고! 인생샷도 많이 남기고! 아주 알찬 9박 10일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고생도 했지만, 나중에 추억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를 한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안예은 단원





소모임 송년회

소모임을 통해 서울탐방, 베이킹, 한강 라이딩 등 취미 생활을 즐기고 단원들과 친목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에서는 2기 단원들 뿐만 아니라 1기 단원들, 지난 아산나눔재단 인턴들과 만날 수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남 단원





자치 위원회

유스를 운영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우리 위원회들~ 유스
단원들의 정신적지주인 기장단과 유스의 우체국 소통팀,
유스의 추억기록을 책임지는 기록팀, 유스의 든든한 아침밥
지원팀, 유스 놀이대장 기획팀, 유스를 멋지게 알려주는
홍보팀. 단원 모두가 한명도 빠짐없이 7개월 동안의 유스를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에 더욱 즐겁고 가치
있는 7개월을 보냈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7개월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혜 단원



너와 나의 이야기



너와 함께여서 더 좋았어



유스 그리고 나

강성희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 까지, 약 7개월은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비영리 전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유스 모집 포스터를 보고 가벼운 호기심과 관심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류합격과 최종합격 결과 모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자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후회 없는 대학생활 하기!'를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교내와 교외에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던 유스를 통해서, 22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이런 것 같아.'라고 추측해온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살아온 3년의 기간 중 가장 무모한 도전이었던 유스 덕분에, '후회 없는 대학생활 하기!'라는 제 목표에 큰 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유스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5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중앙센터에서 다루는 업무들은 제가 관심이 있던 부분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게 된 선생님이 계셔서 신입직원 교육 등 중앙센터에 적응하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초반에는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같은 팀의 선생님과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일을 자세히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5개월의 인턴십 동안, 매달 다른 팀의 사업에 배치되어서 다양한 내용의 업무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협력사업 지원, 온라인 홍보사업 지원, 재능 나눔 공동 협력사업 지원 등 각 팀의 사업들을 지원했던 것도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업무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업무는 '국외연수 방문기관 아카이빙'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처음 근무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까지 가장 많이 진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평소에 관심 있던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잘 알지 못하던 분야를 다루는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면서,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스 그리고 유스

유스! 라고 하면, 30명의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교육 첫날, Ignite Youth를 통해서 서로를 소개할 때까지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관심사가 뚜렷한 멋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전교육, 정기교육 그리고 글로벌 스터디 과정까지 서로 겹치는 교육과정과 인턴십을 병행하는 것이 절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별로 활동하는 교육은 단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다양한 영역들을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30명의 유스 단원들을 만나서 더욱 행복했던 유스였습니다.

학교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장래희망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

좌우명
Semper Fi.



지금의 나는
쉽 표
덕분이에요!



나를 변화시켰던 시간

김민경

2기를 처음 만나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5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공고를 보고 가슴이 뛰었던 저 자신을 한 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시작된 다양하고 끊임없는 과제들은 수도 없이 저를 시험했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서 겪었던 모든 경험은 저를 비영리 분야로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3주간의 사전 교육, 5개월간의 인턴십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소셜섹터맵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유익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제게, 인턴 기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은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태화복지재단에서 전략기획과 및 사회복지연구소 업무를 보조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경험을 얻음과 동시에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며 더 깊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던 최수진 부장님과 김주영 연구원님 덕분에 큰 그림을 보는 법과 한 번 더 생각하는 법,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생각을 끌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인턴 수행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기에 저는 책을 읽으며 비영리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 성격과 역량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더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었고, 저를 지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전략기획과와 연구소 직원분들이 있으셨기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지만, 그 안에서 배웠던 생각의 깊이와 비영리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함께, 치열했던 우리

처음 만나 어색하게 웃으며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인턴십이 각자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경험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면 교육과 프로젝트는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리더의 강연을 들을 뿐 아니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NGO, 사회적 기업, CSR 분야의 기관을 방문하여 비영리 분야의 전반적인 구조를 익혔습니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며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사회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만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단원이 되기 전에는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나서서 발표하고 싶어 하며, 제 주변의 일을 조금 더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떠한 틀도 없이 저를 바라봐 준 단원들 덕분에 있는 그대로의 저를 드러내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기 단원들 모두 사랑합니다!

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인턴십 수행기관
태화복지재단

장래희망
NGO 활동가

좌우명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지금의 나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유스
덕분이에요!

새로운 도전,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만나다

김보경



지금의 나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기보다
직면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배울점이 많은 유스 단원들
덕분이에요!



학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장래희망
비영리분야 종사자

작우명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와의 첫 만남

저는 막연히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학이라는 전공에 뛰어들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대상자를 만나고 그들과 부딪치는 생생한 현장 속에서 항상 함께했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나는 나중에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막상 사회에 나갈 시기가 다가오니 내가 배운 것을 전달하고 타인의 삶을 들어주고 나눌 수 있을까 확신이 흐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휴학을 하고 나 자신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지금껏 해오지 않은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프로그램은 나를 한층 성장시켜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 멘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정기교육과 인턴십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프로그램으로 7개월을 보내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보고 경험했던 분야는 비영리 분야의 매우 작은 일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고자 움직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알아가는 소셜 섹터맵핑, 사회문제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터디를 진행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은 저의 견문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진행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저는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상장 제작, 평생 교육홈페이지 개설, 국제행사 사회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실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경험한 봉사활동으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의 인턴 생활은 딱딱한 서류업무라고 생각했던 행정적인 부분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와 나를 찾는 시간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끝내고 얻은 가장 멋진 것이 있다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적네트워크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이야기하며 또 다른 부분의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함께 비영리 분야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과 생각으로 모인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바라보는 것도 추억이자 재미이지 않을까 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추억과 스스로 많은 변화를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창피해하지 않고 인정하고 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의 가치

김수현

시간의 속도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 활동한 지난 7개월은 오후의 단잠처럼 짧지만, 꿀처럼 달콤해 깨기 아쉬운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되기 전이었던 2016년 상반기의 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걷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수십 개의 자소서에서 쓰인 문항을 작성하면서도 정작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1기에 지원했다 떨어진 경험이 있었고 졸업을 앞두고 추가학기를 들어야 한다는 상황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대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졸업하고 싶은 활동이었기 때문에 주저 없이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30명의 단원들이 모인 사전교육 첫날,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비영리 분야를 꿈꾸는 단원들의 자기소개는 열정 가득하고 개성 넘쳤습니다. 앞으로 있을 5개월의 인턴십과 함께 소셜섹터맵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테디의 박박한 일정을 들으면서 ‘괜히 지원했나’라는 약간의 후회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겠구나’란 생각을 잠깐 하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의정부에서 인천까지 왕복 총 5시간의 통근 거리였습니다. 아침형 인간을 넘어 새벽형 인간이

되어 긴 거리를 통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책도 읽고 정기 교육 보고서도 작성하면서 나름 알차게 통근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생전 처음 해보는 분야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곳은 인천문화재단, 그중에서도 인천아트 플랫폼이라는 부서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주요 사업은 시각, 공연, 평론 분야 입주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입주작가의 70%가 시각예술 분야였기 때문에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기획전시를 함께 있어 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저에게 업무에 임하는 매 순간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과 미국에서 온 국외 작가분들의 어시스트 역할도 맡게 되어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부서 선생님들과 멘토님의 도움으로 저의 부족한 역량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저의 그릇을 이전보다 더욱 넓히는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5개월의 인턴십과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교육을 병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기관에서 한 사람의 인턴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을 유스 단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 만으로도 저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였기에 무사히 7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분야의 리더가 될 유스 단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개인적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끝난 이후 그동안의 추억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학교
국민대학교 경영학

인턴십 수행기관
인천문화재단

장래희망
문화예술 마케터

작우명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9명의 빛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해 준 것이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저 또한 다른 29명의 유스 단원들에게 선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Performance
[BAE Insook
_music for Two People]
9/24 1-5PM

배인숙 작가와 함께
음악을 연주해봐요.



지금의 나는
반짝이는 29명의
유스 친구들
덕분이에요!

다시 봅시다

김예림

첫째, 저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뚜렷한 답을 얻는 순간에 희열을 느끼며 그 순간이 되도록 빨리 찾아오도록 노력합니다. 둘째, 저는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일의 효율적인 진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단원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소셜섹터맵핑팀보다 사회혁신 프로젝트팀에서 합의에 대한 강도가 더욱 심해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의 과정에서 질문만 끝없이 이어지고 답은 나오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과 논의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답’은 때때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 과정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기관에서 한 학기 동안 중학생들과 환경 교육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학습지를 인쇄하고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리더팀 인턴인 삼수님께서 학습지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제 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효율성에 대한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며 그것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덧붙여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며, 제가 고려하지 못한 여러 변수로 인해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 여러 변수를 미리 예측하여 수업 준비에 반영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변한 이야기하자면 이것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분량이 있으니 짧게 줄이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만난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원들, 심성이 곱고 유쾌하며, 때로는 철학적인 질문도 서슴없이 던져준 단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서 끊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사전 교육 때 본 뮤지컬 <빨래>부터, 브로드웨이에서 본 <Wicked>까지 유스 프로그램과 함께해 행복했습니다. 점심 먹고 사무실 가는 길에 사 갔던 고구마 라떼의 따뜻함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치, 코치, 재치를 모두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봅시다.

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

인턴십 수행기관

환경교육센터

장래희망

환경부 장관

좌우명

눈치코치재치 있는 사람이 되자



지금의 나는
모두들
덕분이에요!



스물네 살 어느 날, 나, 우리, 그리고 세상을 발견하다

김이레

참으로, 맛있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지원할 때,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분야의 맛을 고루 볼 수 있는 잘 차려진 비빔밥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그 기대에 걸맞게 사전교육, 워크숍, 인턴십 수행, 정기교육이란 재료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비영리 분야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힘들지만, 행복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며 저의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참 맛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동반자’들을 만났습니다.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29명의 친구와 한 길을 걸어간 것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화되어 변화의 불씨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움직일 희망들을 만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만들어나갈 변화들을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는 다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고자 노력하고, 공동의 약속을 지키면서 ‘함께’의 힘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성장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느리고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인턴십 수행을 하면서 제가 ‘선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가치를 가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알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수치적인 성장이 아닌,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았으나, 인생을 바쳐 달려나갈 그 한 가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제게 특히 인턴십 동안의 블로그 포스팅, 전화 모금, 멘토링,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은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LA에서 진행한 글로벌 스타터디는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배우고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제 열정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학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인턴십 수행기관

아름다운가게

장래희망

선한 가치를 전파하는 마케터

작우명

인생은 여유롭게, 매일은 성실하게

지금의 나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여러분과

기나긴 토의를 한

덕분이에요!



함께 해서, 해주어서, 할 수 있어 감사

김지은



지금의 나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들이 좋게 만들어 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덕분이에요!



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인턴십 수행기관
우리주간보호센터

장래희망
좋은 선생님

작우명
믿음 소망 사랑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며 배식 봉사하던 첫 순간부터, 수료식을 앞둔 지금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 함께 한 시간은 너무나도 값진 인생공부였고, 감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비영리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었고, 질문에 대한 다양한 해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주간 보호센터의 인턴생활은 함께해서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한 매력과 무지개같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신 24명의 이용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통통 튀는 매력들을 탐구하기엔, 5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물건도 잘 못 챙기는 부족한 제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과분하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용자분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그분들을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 온전히 이해해보려 노력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계시판을 꾸미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 퍼즐 맞추고, 손 하트도 가르쳐드리고, 고목 같은 몸으로 열심히 스트레칭도 해보고, 같이 밥 먹고, 양치하고, 주말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단조로웠던 자신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면 즐거워하는 이용자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왠지 모를 찡함도 느꼈습니다. 소감문을 쓰는 지금 이용자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피식 웃음이 지어지고, 두 손 모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 기도해 주시던 이용자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완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분들이 제게는 완성된 존재였습니다. 이용자분들에게 제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 저는 행복한 인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접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저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미숙하였고, 스스로 아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수고 많았다.’ 격려해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분들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 비영리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5개월간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하루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이용자분들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 인터뷰 등 소셜섹터맵핑 과정을 진행하며,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인더트랩’ 팀원들이 있었기에 즐겁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테디로 연말을 함께한 ‘아미고’팀은 다양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준비과정은 힘들었지만, 글로벌 스테디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하는 팀원들이 있어 긴 과정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아산나눔재단과 매니저님, 삼수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턴생활 동안 소소한 즐거움을 준 베이킹 동아리 BAC와 율타리가 되어준 하울 그리고 2기 모든 단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연이 만들어낸, 값진 7개월

김해랑

첫 번째 우연, 시작

스물여섯, 4학년. 대학생활의 황혼기 등 씁쓸한 단어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2016년은 한숨과 고민으로 나날을 보내던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스스로가 정체됐다고 느끼며 무언가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심하게 학교 게시판에서 봤던 단어, ‘Big plan’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큰 계획? 비영리? 그거 힘든 거 아닌가? 또 시시콜콜한 홍보물이겠지?” 하면서도 어느새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훌쩍 뛰어들어 지원서를 쓰고 있었고, 운 좋게 합격하여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연, 배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포럼,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연히 만났던 모든 분이 저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놀라운 동기 단원들, 다양한 비영리 현장자 분들, 그리고 기관의 동료분들과 상사, 해외 비영리 종사자 분들까지, 많은 분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 특성상 영리적 관점에서만 언제나 생각해왔기 때문에, 합리적 해결방안을 영리 범위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와 글로벌 스터디를 통해 소통하고 배우면서, 비영리적 관점을 통해 나오는 솔루션들이 기발한 창의성과 임팩트를 산출해 내는 것을 보며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연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연, 경험

자원봉사 경험도 미미했던 제가, 비영리 재단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의료지원 재단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의료지원 현장에 나가 대상자들에게 직접 의료지원 서비스 및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지원과 교육연구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주 세세한 부분부터 큰 곳까지 직접 준비하고 운영을 보조하였습니다. 때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조직의 전체 사업에 있어서 A-Z까지 배울 수 있었고, 늘 궁금했던 한 조직의 업무 순환과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운영해볼 수 있어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기를 마무리하며, 소소한 우연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와 도움을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신 한국실명 예방재단 직원분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단원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학교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

장래희망
좋은 아버지

좌우명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유스와
언제나 영롱하게 빛나는
우리 단원들
덕분이에요!



사람, 삶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박경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서부터 가져온 수많은 장래희망을 관통하는 제 꿈입니다. 매우 막연하고 허황하여 보이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꼭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만나기 전,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며 막연한 고민만 하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는 기회가 깜짝 선물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전교육에서 다양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단원들, 그리고 비영리 분야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서울 YWCA에서 저의 첫 인턴십 경험을 시작하면서 부족하고 미숙한 나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다른 분들처럼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우선, 각자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진 29명의 단원을 만났습니다. 7개월의 여정 동안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도 각자의 의견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멋진 단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YWCA 실무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5개월 동안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부족한 저를 서울 YWCA 모든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과분한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특히 NGO 활동가이자 인생의 멘토로서 조언해주신 최봄 부장님, 민혜경 국장님, 그리고 양선희 사무총장님을 만나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 YWCA에서 저는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앙트러프러너십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누구나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청소년들이 가진 두려움과 상처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이전에 했던 고민의 답을 찾진 못했습니다. 다만, 고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사람에 대한 저의 두려움을 극복했고,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비영리 분야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얻은 기회들과 사람들이 제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듯이,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인턴십 수행기관
서울YWCA

장래희망
거버넌스 정책 전문가

좌우명
솔직하되 제멋대로 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다



지금의 나는
이 글을 쓰면서
흠쩍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모두 유스를 통해 만난
소중한 분들
덕분이에요!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있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박민석

도전과 성장의 장

사방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들과 푸른 나무들이 만연했던 7월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 7개월 동안의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은 '새로운 환경과 방식들에 적응해 나가는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평소애 머리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몸으로 실천한 후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과정을 통해 비영리 영역을 분석하는 '소셜섹터맵핑', 조원들이 모두 함께 합의한 결과를 통해 진행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자기 생각을 피력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때로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익숙지 않은 과정들이 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이 던지는 질문의 필요성과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고, 토의 시간에 조용히 눈치만 보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횟수가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점차 달라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논의한 시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의 인턴십은 '권리와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는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들어왔을 때는 업무량이 많고 적응에 상관없이 어떤 업무든 해낼 수 있는 슈퍼인턴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업무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업무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와 프로젝트에서 받는 압박감이 가중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와 팀 프로젝트에서 잦은 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당시, 멘토님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고,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것도 배움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힘든

상황에 대해 상담사 선생님께 표현하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으로, 현장에서 소진이 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소셜섹터맵핑
멘토님들과
윤상석소장님
똑똑하고 아량이 넘치는
유스 단원들
덕분에요!

학교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

인턴십 수행기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장래희망
CSR전문가

좌우명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라

소중한 유스 친구들

단원 개개인 모두 여태까지 봤었던, 어느 친구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배울 점들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개개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살려 만든 소그룹(베이킹, 자전거, 독서그룹, 여행)들도 재미있었고 배울 점이 많았지만,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감하며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좌절하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단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어도 제가 처한 상황에 공감해주며 그들이 던진 진심 어린 조언들이 제게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원들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유스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제가 얻은 3가지, 즉 사고의 변화, 표현과 권리의 중요성,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맨'이 되겠습니다!



HOW

박상미



지금의 나는
단원들의 개성과
와우북에서 보낸
하루 하루
덕분이에요!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철학

인턴십 수행기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장래희망
박상미

작우명
흐르는 강물처럼

6월, 이제 막 봉대 감기를 배운 참이었습니다. 한창 샌드백을 치던 중에 문자 알림음이 울렸고, 저는 부리나케 달려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합격이라니! 그날따라 샌드백과 주먹의 파열음이 참 경쾌하더군요.

저는 교육이 시작되는 7월부터 체육관을 가지 못했지만, 매번 저의 부족함과 링 위를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제가 무릎을 꿇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인지 왜 부족했는 지 스스로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내가 못아서.'였답니다.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말이죠. 저와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나곤 했습니다.

하루는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페스티벌 참가자에게 안내문자를 전송하는 일이었는데, 문자에 다른 장소를 기재한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망했다.'라고 외쳤고, 팀장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때 주마등처럼 회의시간이 스쳐 갔습니다. 제가 인턴을 하던 와우책문화예술센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데, 그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꼭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놓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와우에서 줄곧 맞이했던 이 물음은 업무의 온전한 지속뿐 아니라, 제 삶에서도 자유와 책임을 보존하는 연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한 행동을 '진실로'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으로 실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왔던 감정적인 답변은 피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현재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게 참 중요하더군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부족함과 조금함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면서도 현재 저의 선택을 더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줄곧 부족한 존재겠지만, 어떻게라는 물음과 함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력무력 자라겠지요.

나를 담금질하다

박상준

나를 위한 담금질의 시작

어느새 1월입니다. 곧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2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안국역에 내려 면접을 볼 때가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고 느낀 그 떨림이 어느새 잊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 떨림은 조금씩 잊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두근거리는 설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마냥 좋아서 비영리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조금 더 비영리 분야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무작정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을 하면서 내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필요한 감정을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고 불평 불만하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활동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때로 상처받고 극복하고 다시 좌절하고 견뎌내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쓸모있는 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담금질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담금질의 첫 장소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저의 첫 인턴 생활은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이 좋고 사람을 좋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접한 자원봉사는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현장의 업무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의 유형, 원칙, 문제점 그리고 중요성까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실 첫 인턴 생활이었기에 실수도 찾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다들 좋게 봐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제게는 많은 추억이 남았습니다. 함께 했던 봉사활동 프로그램, 부산 워크숍, 업무 후 회식, 프로젝트 리더, 봉사자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관상용 새가 아닌 비상하는 새

다시 보면 참 많은 것을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활동을 통해 배워나갔습니다. NPO, 사회적 기업, CSR 영역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턴십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식만 주입되고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관상용 새가 아닌, 혼자 비상하고 날기 위한 새가 되기 위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는 날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를 끝마쳐가고 있는 지금, 후회의 감정으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7개월 동안의 교육과 인턴십, 그리고 친구들이 제게는 소중한 기회였기에, 좋은 경험으로 남겨놓으려 합니다.

학교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

인턴십 수행기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장래희망
희망을 전하는사람

작우명
어디를 가든지 네 마음을 다해가라



지금의 나는
내 생각
덕분이에요!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

박해주

깜박이는 커서만 몇 시간 쯤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7개월을 어떻게 이 한 장에 담아낼지도 막막했고, 이 글을 쓰면 정말로 프로그램의 마지막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만 같아 긴 시간 운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 함께했던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차근차근 곱씹어보며 한 자 한 자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희일비(一喜一悲), 주어진 순간들을 오롯이 받아들이 수 있게 되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하기 직전의 저는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인간관계에 권태롭고 외로웠고, 저를 남들과 비교하며 혼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했습니다. 더는 상처 받고 싶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고 저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만나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 할 줄 알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는 유스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여 행복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히려 제게 더 큰 힘이 되어준 유스 친구들 덕분에 또 한 번 행복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승복 팀장님, 지훈 팀장님, 성우 매니저님, 삼수 인턴님을 비롯한 아산나눔재단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파엘인터내셔널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을 하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많은 부분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주셨던 라파엘 식구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을 발휘하여 몽골과 미얀마에서 오신 연수자 선생님들께 힘이 되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습니다. 인턴십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렸던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에 서툰 모습을 보이거나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여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힘들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다시 움츠러들고 마음을 닫고 싶어지는 저를 볼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시 행복했습니다. 일희일비하며 순간순간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기에 즐거워하는 나도, 고민하는 나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쉽 표

덕분이에요!

학교
한양대학교 사학

인턴십 수행기관
라파엘인터내셔널

장래희망
모두의 아리따움을 긍정하는 사람

작우명
Sin Prisa Sin Pausa

Pessimism of the Intellect, Optimism of the Will

그렇게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매 순간을, 모든 사람을 마주할 수 있었고 마침내 저 자신도 오롯이 마주하며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지금 ‘드디어 나다움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나다움을 찾는 여정 그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나다움을 찾지 못해서, 그사이에 한 살을 더 먹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은 조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의 내가 있을 거라 믿기에 조금은 더디더라도 멈춤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신만의 나다움을 찾기 위한 각자의 여정을 이어갈 아끼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모듈을 항상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저 멀리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빛나는 이 앞의 한 걸음

서현아

남은 평생 아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방법과 살림의 실제 세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턴십은 고민과 기대, 그리고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슬픔에서도 배움이 있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의 배움은 행복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간직하고 싶은 배움은 '친절과 배려'입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었는데, 초반 교육 때 들은 말보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그 친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말로만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까지도 직접 찾아주고 끝까지 확인해주는 모습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인 저를 늘 배려해주면서 당신들도 하기 싫을 일들까지 직접 술선수법하고, 지시사항이 있을 때도 저를 자리에서 부르기보다 직접 다가와 말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재능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성실하신 모습에 감동하여, 초반에는 직함이 아니라 언니라고 부를 것 같아 속으로 혼자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부터 꼭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하고 한 달 동안 보육실습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역아동센터 교육 봉사 시간을 통해 빛나던 비전에 배움과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직접 센터의 아이들과 센터 종사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은 무엇이며, 아이들과의 소통, 교육 방법, 그리고 센터의 운영까지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던 '종사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기도 하고, 지방에서 행사도 하고 제주도로 힐링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셋 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추억이 되는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생생한 고민과 경험을 들으며 깊은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민, 그러나 어느새 한 걸음

비전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기대만큼 비전이 명확해 지지는 않았습다. 비전은 있지만 어떻게 나아갈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새로운 방법과 그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비전의 실천과 공유를 통해 깊게 고민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지만, 돌아보고 나니 비영리에 뜻이 없는 사람에게도 권해보고 싶은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7개월간의 받은 배움을 앞으로 어떻게 나눌지 기대하며, 다음 3기에 미리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짝짝)

학교
명지대학교 아동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장래희망
아동에게 교육, 복지, 상담을 협업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작우명
As the light of the world

지금의 나는
제가 사랑하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덕분이에요!



추억으로, 경험으로, 세상으로

송근우

수기를 쓰면서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해 처음 제출했던 지원서부터 인턴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을 기록한 수첩, 단원들과 함께했던 워크숍, 정기교육 등의 사진과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록들을 보면서 몽글하기도 하고 작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 이었고 정신없이 지나갔던 한 해였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하기 이전의 저는 비영리 분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인턴 경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개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모집 소식을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알찬 구성과 비영리 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개월간 함께한 기관은 코피온이었습니다. 코피온에서 저는 국제협력 2팀에 소속되어서 해외봉사단 파견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난생처음 느껴보는 사무실의 분위기와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코피온 직원들께 인사를 드리니 긴장되면서도 신나서 첫 1~2달간은 주변 간사님들과 팀장님께 사소한 것까지 질문도 자주 드리고 일상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잦은 실수와 이에 따른 자책, 외부 일들의 가중으로 위축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께서 첫날 제게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해보라'고 조언해주신 말씀이 생각났고 기계적으로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차츰 적응해 나아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첫 사회생활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잦고 어려웠지만, 그와 동시에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회계업무, 인증서 발급, 보고서 작성과 같은

일들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주변 간사님들께 여쭙 봐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코피온과 함께 한 5개월은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사내 분위기, 국제 개발협력 등에 대해서도 고루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인턴인 제게 늘 '간사님'이라 불러주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셨던 코피온 직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인턴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스 생활 내내 함께했던 소셜섹터마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 모두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단원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저 자신도 비영리 영역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혁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때까지 해봤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글로벌 스테디를 팀원들과 함께 직접 기획하면서, 전혀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 팀만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음 아팠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이 유독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7개월은 가장 뜨거웠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 듯합니다. 그 순간을 함께 한 단원들과 윤상석 소장님, 천성우 매니저님, 박지훈 팀장님, 삼수님을 비롯한 유스와 제게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스 단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상명대학교 경영학

인턴십 수행기관
코피온

장래희망
음악가, 기업가

좌우명
늘 신중하게



지금의 나는
유스와 함께했던 7개월
덕분에요!



마음껏 배우고, 부딪히고, 울고, 웃고. 그렇게 나를 마주했던 시간

안예은

두근두근, 7월 11일. 설렘을 안고 아산나눔재단 교육장으로 들어가던 그 날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7개월간 울고 웃으며 함께한, 참 소중한 29명을 만났습니다. 약 3주간의 사전교육이 시작되었고, Ignite Youth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멋진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성수동 소셜벤처 탐방, 비영리 선배들의 강연, 디자인 씽킹 워크숍 등 평소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듣고 참여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소셜섹터맵핑을 통해 NGO/NPO, 사회적 경제, CSR/CSV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을 인터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버겁기도 했지만, 비영리 영역의 스펙트럼과 각 섹터의 차이, 임팩트 측정 방법 등 '비영리'라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교육과정이 단순히 외우고 평가받기 위함이 아니었기에, 계속해서 '왜'를 질문하며 배워간다는 기쁨에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던 경험이었습니다.

무더운 더위와 함께 인턴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내 책상, 처음 하는 업무. 모든 것들이 새로웠고, 낯설었고,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중고등시절부터 해보고 싶었던 국제개발 업무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대했던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회계, 엑셀 작업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가 지겹기도 했지만, 국제개발업무에서 가장 기본인 회계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0월부터 KOICA 지원사업 중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를 맡았던 일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총 9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한국에서의 10일간의 일정을 기획하고 동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각 대학병원과 연락하고, 예산안을 짜고, 다른 문화권을 가진 그분들과 일정을 동행하는 일이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겨준 팀장님과 함께 도와주었던 간사님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초청연수라는 해외사업팀의 큰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월에는 무료개안수술 캠프인 EYE CAMP를 베트남으로 다녀왔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통해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해 하는 사람들을 보며 비전케어가 추구하는 미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을 계속하시는 간사님들을 진정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우리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우리의 가능성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덕분이에요!

학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인턴십 수행기관
비전케어

장래희망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작우명
코람데오

인턴이기에 서러운 일들도 있었고, 교육과 병행하며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듦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유스
단원들이 있었기에 잘 토닥거리며 인턴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정기교육이 있는 금요일. 한 달에 두 번
밖에 만날 수 없어 서로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날들.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각자가
정한 주제에 이야기를 쏟아내던 열정의 시간. 제과제빵
소모임에 참여해 케이크와 빵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 이 모든 것이 아산 프론티어 유스였기에
가능했고, 그래서 더욱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비영리의 길을 실제로 걸어보고자 했고,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제게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이상에 가려진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찾게 되었다는 것 또한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아산나눔재단과 소중한
유스 동역자들에게 감사 را 보내며, 어디에서든 지금처럼
반짝이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껏 경험하고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아파하고 또
즐거워하며, 내 안의 진짜 '나'를 볼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감사했습니다.



유스를 통해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다

오진의



지금의 나는
유스에서 마주한
또다른 나
덕분이에요!



학교
한양대학교 사회학

인턴십 수행기관
아름다운동행

장래희망
일과 글쓰기를 병행하는 작가

작우명
일일신 우일신

살면서 비영리 분야와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자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거나, 후원회원을 통해 인연을 맺는 등 비영리 분야와 제 인생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회원으로 비영리 분야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지만, 직접 일하는 것은 현장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를 통해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설명회에 다녀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개의 인턴십 기관을 꼼꼼히 읽어본 끝에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들어 본 '아름다운동행'을 희망 기관으로 적었습니다. 떨리던 면접이 끝나고 저는 마침내 아름다운동행 나눔사업팀 일원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단원으로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A4용지와 함께 한 아름다운동행 나눔사업팀 인턴생활

5개월 동안의 인턴 생활 동안 가장 가까이했던 물건은 바로 A4용지였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팀원이 팀장님과 저, 둘밖에 없어 팀을 드나드는 서류는 거의 모두 한 번씩은 살펴봐야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적힌 종이가 책상 위에 놓여 있기도 하고, 행사 계획이 빠곡히 적힌 종이를 사람 숫자대로 복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기본 소식을 전해줄 종이를 팩스 번호를 꼭꼭 눌러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했던 종이들은 바로 지원서들입니다. 재단의 국내 배분사업은 수혜 희망자 혹은 기관이 신청하면 선정을 통해 지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달 말일이 되면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정리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매달 지원사업 외에도 나눔사업팀의 큰 사업인 책가방 보내기 지원사업, NGO 공모사업은 지원서만 몇백 장에 이르러서 서류들을 정리하던 제 책상에는 언제나 종이가 가득했습니다.

유스를 통해 만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

유스를 통해 익숙한 학교를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이제까지 제가 몰랐던, 혹은 그동안 마주하기 싫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유스는 인턴생활 외에도 두 개의 팀 프로젝트, 글로벌 스터디가 함께 하는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팀 프로젝트라면 학교나 동아리를 통해서 질릴 만큼 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스를 통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일과가 끝나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해 맡은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막연하게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 일의 분배 요령과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글로벌 스터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외를 다녀오면서 한국에서는 몰랐던 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의 목표를 잘 맞추려고 한다는 것도 유스를 통해 발견한 제 장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영리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을 넘어서 솔직한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시야는 넓게, 나의 사고는 깊게

유명환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시작은 사전교육이었습니다. 다양한 소셜섹터의 명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다지고, 소셜섹터맵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비영리를 꿈꾸는 대학생들도 드물고, 그마저도 낭만을 품는 정도에 그칩니다. 소셜섹터맵핑은 우리의 막연함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각각 NGO·사회적 기업·CSR의 사회문제를 해결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식량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 정도의 단순한 생각에 그쳤다면, 소셜섹터맵핑을 통해 실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진행과 효과, 한계를 공부하며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인 면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이론이었다면 8월부터는 실제 비영리단체 현장에 투입돼 실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자원봉사문화에 배치되어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원봉사 행사준비 그리고 핸즈온 자원봉사 기획 및 실행을 맡았습니다. 플랫폼은 친숙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자원봉사에 플랫폼이 왜 필요할까?”라는 저의 합리적 의구심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연말 행사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도 맡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리더로서, 카페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컵을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미니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책임감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갖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사회혁신 프로젝트로 우리가 사회문제를 정해서 국내외 기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국내기관 탐방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해외기관 탐방은 언어와 일정 조율 등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결코 얻기 힘든 혁신적인 접근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비영리를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이론과 실무 그리고 해외사례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저의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의 깊이를 한층 깊게 해준 특별한 교육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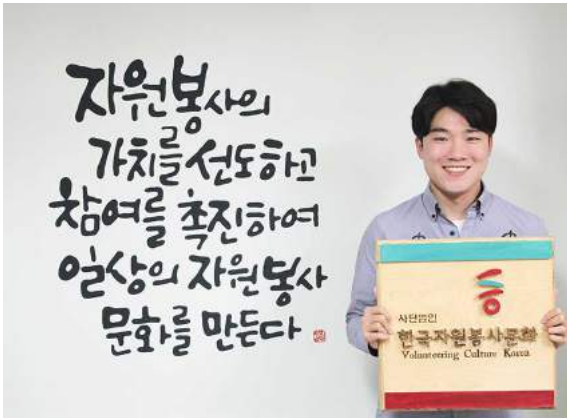
학교
인하대학교 교육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자원봉사문화

장래희망
국제구호활동가

작우명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지금의 나는
도전적인 경험
덕분이에요!



7개월간의 휴식시간을 마치며

이동은

유난히도 덥던 2016년의 여름,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인턴십은 날씨만큼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친 저는 삶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주한 저의 삶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취업할 시기가 되어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만, 답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저를 지치게 하였고, 삶을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반복되고 지루한 삶에서의 일탈이자, 휴식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며 많은 것을 얻고 배웠지만, 가장 크게 얻은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동료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때, 제 삶을 지루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는 제가 가진 가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존재의 부재였습니다. 정치학과인 제 주변인들은 비영리 보다는 영리, 외교, 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비영리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더욱 이야기 하려 하기보다는 “그 길을 왜 가?”라는 식의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선구자 같은 느낌을 받아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스 단원 29명을 만났고, 이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기 관심이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동료의 존재는 저에게 즐거움이었고, 앞으로의 날들에 든든한 지원군들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배움이 없는 곳은 없다.’입니다. 저는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이익과 손실을 따져가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가까이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영리를 선뜻 진로로 선택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한 것도 과연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될까 하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은 이런 저의 생각의 틀을 깨게 하였습니다. 제가 5개월간 수행한 인턴십 기관은 ‘성남시한마음복지관’입니다. 이미 실습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기관에 다시 인턴십을 하러 가는 것이 무슨 배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스 활동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턴십을 수행하며, 포기하지 않았음에 크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복지관의 기획팀 일은 실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직원들과 관련된 업무들은 다른 기관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기에 충분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만의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나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역시 어디서도 해볼 수 없는 큰 기회였습니다. 또한, 100명이 넘는 직원 한 분, 한 분에게서 각기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것은 배움이 없는 곳은 없고,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어디에서나 깨달음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제가 가진 물음표에 대한 답을 모두 찾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7개월간의 휴식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꿀 같은 휴식이었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다시 앞을 향해 달려보려 합니다.

학교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

인턴십 수행기관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장래희망
국제구호전문가

좌우명
느낌표 있는 삶을 살자!



지금의 나는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한층 긍정적이게 바뀌었어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덕분이에요!



지금 다시 고민을 시작하자

이재정

지금의 나는
수많은
고민덩어리를 안겨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덕분이에요!



학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

인턴십 수행기관

다시함께 상담센터

장래희망

여성 활동가

작우명

나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저는 늘 ‘어떤 고민을 하며 사는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는 삶의 방향성을 고민케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다른 이와 공유할 때 서로 각자의 위치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저에게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기획의 장이었습니다. 현장 활동가의 삶을 체험하게 해줬던 인턴십, 다양한 소셜섹터를 탐구할 수 있었던 소셜섹터맵핑, 스스로 사회를 바꾼다는 상상을 통해 즐거웠던 사회혁신 프로젝트와 글로벌 스터디까지.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과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제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했고, 고민을 심화시키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설득하는 법, 인내하는 법, 소통하는 법 등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물론 ‘비영리’, ‘여성’, ‘성매매’ 등 실질적이고 학문적인 고민거리도 남겼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한 기관은 ‘성매매’라는 특수한 주제를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성매매는 낯설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사회에 만연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고,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활동하는 현장기능 강화 사업팀에서 일했습니다. 평소 여성주의와 여성인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이 곳은 아주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배움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 그곳에서 만났던 다양한 인연들, 인턴을 하면서 읽었던 다양한 책들

하나하나가 저에겐 모두 ‘질문거리’이자 학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관은 다양한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여성, 그중에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서적도 여러 권 읽었고, 성매매 여성들의 상담 사례집과 구술사, 수필 등을 읽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기도 했고, 이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도시개발에 대한 책도 읽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들에게 한글 수업을 하기 위해 한글교재도 봐야 했고, 그분들의 지냈던 삶의 기억들을 자서전으로 엮어 드리기 위해 자서전 쓰기와 관련된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책들 역시 제 고민을 만들어준 요소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에서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당장 할 것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느꼈던 수많은 고민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제 것으로 흡수해낼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고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고민의 좋은 자양분을 마련해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지연

고등학교 때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으로 사랑스럽고 빛나는 존재로 태어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사회 복지학을 전공했지만, 현실실습을 나가면서 머리로 공부하고 마음으로는 다짐해도, 제 손과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꿔온 길이 정말 내가 잘해낼 수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답을 내릴 수 없는 고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꿈꾸며 살아왔고, 소망하며 보냈기에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보자!'였습니다. 학교를 잠시 벗어나 현장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YWCA연합회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협력사업부 소속으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시작한 2016년도 8월은 전국에 있는 YWCA 회원들이 4년에 한 번 모두 모이는 전국 회원대회 행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대회가 끝난 후에는 협력사업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기관 속 사람이 되어보니 서서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경험했고, 꿈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NGO 활동가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의심하는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관 분들이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고, 그렇게 뜻깊은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점점 일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발휘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과 함께 소셜색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원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따뜻하고 밝고 똑똑한 친구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삶 자체가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신념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친구들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맘껏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하며 사는 삶,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행복과 감사를 발견하며 사는 삶이 주는 풍성함입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행복을 그려내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사람이 된다면 언젠가 그 빛이 모여 더 환한 빛을 내고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지향점입니다. 꿈이 꿈으로만 남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학교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YWCA연합회

장래희망

내가 속한 곳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좌우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부족한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한국 YWCA연합회 선생님들. 특히 멘토링 시간을 통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던 구정혜 국장님과 이민정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천성우 매니저님, 박지훈 팀장님, 김삼수 인턴님, 윤상석 소장님, 소셜섹터맵핑 멘토님, 항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한 경험의 기회를 준 아산 나눔재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나는
사랑과 격려
덕분이에요!



30명의 보석과 7개월 동안 걸었던 꽃길

이지혜

안녕, 아산 프론티어 유스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저는 졸업유예신청을 했습니다.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후회 없이 했는가?'라는 스스로 던진 물음에 떳떳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저는 취업을 위해 학점관리에 바빴고, 경험이라는 변명으로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저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예를 신청했고 딱 1년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자!라고 결심했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라는 슬로건은 잊고 있었던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저의 꿈을 다시 떠오르게 하였고 온종일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합격통보를 받았을 땐 정말이지 동네가 떠나가라 방방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난히도 더웠던 2016년 여름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의 첫 만남은 지금 흐르는 땀이 더워서 흐르는 땀인지 아니면 긴장이 되어 흐르는 땀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7개월을 보내게 될까?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까? 내가 일하게 될 곳은 어떤 곳일까? 나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합격한 순간부터 수도 없이 상상하고 준비했었는데 막상 첫 만남을 시작하려니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만남은 늘 그렇듯 어색하기 마련이지만 이상하게 더 떨렸습니다. 그렇게 어색했던 단원들은 앞으로 7개월

동안의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 과정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턴십과 사회혁신과제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시간을 줄여야 했고, 프로그램 과정 특성상 팀 과제가 주를 이루다 보니 더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또한, 인턴십을 통해 한 기관의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 역시 사회생활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울기도 많이 울고 지치기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저마다의 가치를 찾고 해낼 수 있었던 건 유스 단원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위로와 충고를 아끼없이 해주며 누구 하나 뒤처짐 없이 함께 가려고 이끌어준 단원들. 그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비영리의 길 위에서

저는 5개월 동안 하트하트재단에서 인턴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위기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상 환자와 미숙아 의료비를 협약병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사업의 담당자가 되면서 저는 더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교육생이 아닌 하트하트재단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워든 처음 경험하는 업무이기에 인턴 초반기엔 실수도 많이 했고, 협력병원 의료복지사 선생님들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행정업무에 치여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놓친 채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한계에 부딪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비영리에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분들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고 격려해주신

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

인턴십 수행기관

하트하트재단

장래희망

아이들이 평등하게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

좌우명

모든것에 기도

덕분에 업무에 있어서 또 관계에 있어서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행사지원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을 직접 만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비영리라는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녕, 아산 프론티어 유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7개월이 지나고 최종발표만을 앞둔 지금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지원했던 순간, 단원들을 처음 만났던 순간, 하트하트재단에서 인턴을 하던 순간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면 저는 어느덧 멋진 사람이 되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다양한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도 또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되겠조. 정답이란 없는 길 앞에 저는 하트하트재단과의 인연을 통해 1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다음 길은 어떤 길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7개월 동안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위해 고생하신 팀장님, 매니저님, 삼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0명의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30명의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유스
덕분이에요!

셋길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

임경희

지금의 나는
매일 매일 만나온
빛나는 사람들
덕분이에요!



학교	인턴십 수행기관	장래희망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푸른나무청예단	체인지메이커

좌우명

내 사전에 비약은 없어도 무의미는 없다

23살, 어느새 친구들이 졸업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졸업은 지구 종말만큼이나 영영 오지 않을 날처럼 느껴졌는데 말이에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쯤의 나는 분명 꽤 번듯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과 함께요. 하지만 '번듯'은 커녕 아직 어른도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어린이처럼 두 주먹 가득 사탕을 쥐곤 어느 쪽도 포기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친구들은 진작부터 한 길을 정해 부단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괜히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도 가봤다가 하다가 결국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한참 뒤쳐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산 프론티어 유스도 그런 셋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5개월간 '푸른나무 청예단'이라는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의 교육기획팀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 대부분 사회 복지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제 전공이 국어국문학이라는 사실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마찬가지로, 동기 친구들도 제가 청소년 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에서 인턴십 중이라고 하면 다들 놀랬었죠. 교육 기획이라는 직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많이 다른 부류의 일이었고요.

이제껏 해왔던 일들은 새하얀 도화지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멋지게 잘 그려 내기만 하면 됐던 일이라면, 교육 기획은 도면 스케치부터 시작해 집의 골격을 세우고 벽돌을 올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라 교육의 탄생부터 운영까지 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것 하나도 고민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운이 좋게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강사, 서포터즈 워크숍부터 학교 배정, 교구 배송, 캠페인 운영, 교사 연수까지 새하얀 도화지가 집이 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것과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땐 쉽게 그려 넣던 집의 문고리 하나조차도 막상 만들려 하니 많은 고민과 과정들을 거쳐야 했죠. 사실 그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 할까 하는 자책을 하기도 했어요. '왜 괜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두고 잘하지 못하는 일을 선택했을까? 결국, 또 제자리걸음인 것 아닐까?'하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턴십이 끝난 지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한 과정을 맡아 진행하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없다는 책임감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단순히 제자리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넘어 발로 뛰어다니며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적인 것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주의를 기울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까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든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해낼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제가 잘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아마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인턴십 덕분에 5개월간 꼭 멀리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천천히 걸음을 내디딘 만큼 그 안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헛되지 않은 길을, 저만의 방법을 통해 나아가겠습니다.

무용수

장자연

나, 장자연은 무용수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은 저에게 스며들어, 많은 고민을 갖고 춤추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만들어낸 자아의 역동적 움직임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 워크숍, 교육 등 많은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단원들과 팀을 이루며 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팀 활동을 하면서, 단원들의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장점이 있는 단원들이 정말 멋졌고, 그 모습을 통해 저를 더 알 수 있었고,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파고들며 토의하고, 이견 조율하고, 역할분담 등을 하는 과정상 팀원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고, 또 그 속에서의 저를 바라보며 저 자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흡수하고 싶은 단원들의 빛나는 장점들을 장자연화 하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무거운 춤

한림화상재단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화상 경험자라는 제가 알지 못했던 타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상 경험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사회적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진 큰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풍물놀이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한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보단, 아이들이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즐거워하면 보람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정말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사회적 임팩트를 실제로 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았고,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과정에서도 팀별로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 대상자를 위한 일을 제안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데, 정말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비영리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될지, 영리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을 위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며 함께 고민해본 것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마움의 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은 다들 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사실 저는 대화는 곧잘해도, 사람한테 어색함을 많이 느끼고, 마음을 열기까지가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단원이 먼저 저한테 관심 가지고 말을 걸어주고,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말들을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고, 그런 단원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 글을 빌어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에게 밝은 미소로 저를 바라봐주고 다가와 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하는 동안, 단원들, 천성우 매니저님, 김삼수 인턴님, 피터, 재단 인턴과 직원분들, 멘토님들, 인턴십 기관 직원분들 모두 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을 발판삼아 저만의 춤을 춰보려 합니다.

학교

동국대학교 경제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림화상재단

장래희망

통찰력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좌우명

긍정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람이 되자



지금의 나는
유스와 함께한 시간들
덕분이에요!



찬란했던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정재은



지금의 나는
애정하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29명과
매니저님, 삼수님, 팀장님, 기관 쌤들
덕분이에요!



학교
남서울대학교 경영학

인턴십 수행기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장래희망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작우명
등불같은 사람이 되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마칩니다.”

강의 시간이 끝날 때쯤 교수님께서는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무언의 약속인 듯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고, 저 또한 질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샌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 ‘방해물’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 활동한 지난 7개월은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수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알고 싶고, 어려웠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군가가 말해줄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알려 주는 완벽한 정답이 아닌 나만의 정답을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질문을 가득 안고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8월, 기관으로 설레는 첫 출근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던 저에게는 새로운 질문들이 채워졌습니다. 내가 전공으로 배웠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새롭기도 했지만 궁금함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일이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처음으로 해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혼자서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고, 기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멘토님과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어졌고, ‘이 일을 지속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있을 때, 인턴종료까지 2달을 남겨두고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 기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사례관리팀을 통해 만나게 된 대상자분들, 이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을 통해, 그리고 기관 선생님들을 통해 답을 내릴 수 있는 힌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직은 계속 고민 중에 있어 대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만의 정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가 어느새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7개월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은 29명의 단원들을 만났음에, 더없이 찬란했던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정합니다.

성장의 발판이 되어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정희남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걸까?’

아산 프론티어 유스 2기 홍보 책자에 실린 30개의 협력기관 명단을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지난 5월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모든 아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에 주제로 공부하고 싶어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았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30개의 협력기관 중 필리핀에서 빈민 아동의 교육과 가족자립을 목표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동방 사회복지회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어 5개월간 국내에서 필리핀 아동센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국내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과정과 방법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인턴십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해외봉사활동에서 물품 구매부터 수업 계획 및 진행,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것을 직접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인턴십을 통해 필리핀 아동복지센터 사업을 국내에 홍보하고 회계 업무를 보조하는 등 간접적이지만 센터 운영에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모금의 멘트를 준비하면서 기관 미션과 나의 사명에 대해 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소식지와 안내자료를 제작하면서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직접 필리핀 앙헬레스 동방아동센터에 방문하여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조사 조사를 진행하며 현지 스태프와 협업할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은 학교를 벗어나 ‘조직’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또 동시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격주 금요일 정규 교육 시간이 무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잘게잘게’ 넘어가는 데 익숙했던 저는 처음에는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이, 출신, 성별, 학교, 전공 등 나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었고 더 풍성한 논의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식과 업무 파악만큼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능력 있는 실무자가 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더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5개월간의 인턴십, 소셜섹터맵핑, 사회혁신 프로젝트,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관이나 사업 규모 확장 따위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한다면 차츰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 저는 다음 무대로 떠나려 합니다. 그럼 이만!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인턴십 수행기관
동방사회복지회

장래희망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좌우명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의 나는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의미를 일깨워준,
캄보디아 아이들의 안부전화
덕분에요!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조성우

저는 현재 원래 살던 춘천에 돌아왔습니다. 난생처음 서울 테두리 안에서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했던 지난 7개월의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서울에서 자던 날, 그리고 동기들을 처음 만난 날 등등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저는 사실 아직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 이번에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다녀와야겠다는 목표로 휴학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아 여름에 떠날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 있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모집 글을 보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글만 계속 찾아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데다, 내가 관심이 있는 기관에 지원하여 인턴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해외도 보내준다고 하니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여행을 뒤로하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한 것은 2016년 저의 선택 중 가장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연대은행에서 5개월 간 인턴으로 지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사업부에서 일했습니다. 저에게 첫 조직생활을 사회연대은행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일 뿐 아니라 저희 팀은 인턴인 제게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 그리고 평가 단계 까지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국내의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하는 많은 분이 직접 들려주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잊고 지내던 소중한 '같이'의 가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렵지만, 곳곳이 자신의 사업을 발전해나가는 모습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고, 닦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 만난 분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만난 30인 30색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동기 단원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만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아산나눔재단, 특히 천성우 매니저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더 나은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은 한 단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줍니다. 좀 더 빨리해봤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봤더라면 하고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보다 마주하게 될 앞날에 대한 기대가 더 큼니다. 더욱 기대되는 앞날을 보며 제가 가진 이정표를 들고 정답 없는 다른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학교

강원대학교 사회학

인턴십 수행기관

사회연대은행

장래희망

자식에게 사랑받는 아빠

좌우명

아는만큼 보인다



지금의 나는
모임 후 가졌던
뒷풀이들
덕분에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유스

하지연

매해 12월이면, 누구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커피를 퇴사하고 맞은 12월의 마지막 주말, 저는 '나의 2016년은 유스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스에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지원서를 쓰던 5월, 면접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던 6월, '진짜' 유스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던 7월, 그리고 마침내 인턴으로 일하게 된 8월부터 12월까지의 5개월. 2016년의 반 이상을 유스로 활동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는 해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 '내'가 '나'다워 질 기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배려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스는, 두 가지 필요조건을 저에게 모두 조성해주었습니다.

사전교육과 소셜섹터맵핑, 인턴십과 사회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 스테디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과정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저에게 사회문제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커피에서 진행했던 5개월간의 인턴십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영역 중 공정 무역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써 그 분야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아름다운커피의 홍보캠페인팀은 공정 무역의 중요성을 사회에 전파하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닿아있는 부서였습니다.

홍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타인에게 공감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심으로 이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을 마치며 찍었던 영상편지가 기억납니다. 그때 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는 요청에 '없어요'하고는 말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할 말이 너무 많으면 없다고 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29명의 단원과 아산나눔재단의 김삼수 인턴님, 천성우 매니저님이 없었다면 저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도, 끝까지 유스를 계속할 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꼭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미 2017년의 시작을 유스와 함께 글로벌 스테디로 장식했기에 당연한 말 같기도 하지만, 제 2017년도 유스일 것 같다는 즐거운 예감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

인턴십 수행기관
아름다운커피

장래희망
에코브리티

좌우명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의 나는
삼수님과 매니저님,
29명의 유스 단원들
덕분이에요!



후회 없이, 있는 힘껏 달려왔던 여정의 끝에서

현남규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NGO에서의 인턴생활, 해외기관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글로벌 스터디, 국내에서의 여러 특강 등...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특별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던 날, 그 어느 순간 보다 기뻛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설렸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가장 큰 보물 3가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게 ‘사람을 통한 성장’을 선물해줬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모든 활동은 같은 2기 단원으로 구성된 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단원들과 일정부터 보고서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과 협력하는 법, 갈등을 조정하는 법’ 등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내 감정을 팀원들에게 유연하게 전달해가면서 갈등을 조절할 수 있을까?’와 같은 수많은 고민을 해온 결과, 팀 프로젝트 동안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좌절감을 느껴야 했던 당시에는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덕분에, 이제는 저만의 답과 철학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단원들과 부딪치며 의견을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깨져가며 고민해왔고, 많은 고민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저만의 ‘일에 대한 태도’를 확립시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국민통일방송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내내, 사소한 하나라도 담당자분께 확인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 했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예전부터 경험하기를 원했던 ‘기획과 홍보’ 업무였기에, 모든 일이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를 보조하거나 주도하게 됐을 때도 예전에 만들어진 기획안을 참고해가며 준비했고, 팀장님께 차근차근 확인받아가며 실무적인 일을 배워갔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사무국’ 국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저에게 최대한 많은 기획과 홍보의 경험을 제공해주셨고, 일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인턴이었음에도 직접 홍보용 카드뉴스를 시도해볼 수 있었고, 작은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까지 전담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통일방송에서의 실무적인 경험들은 스스로가 어떤 직무에서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와준 과거의 나
덕분에요!

학교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

인턴십 수행기관
국민통일방송

장래희망
행복한 기획대행사 대표

작우명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마지막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저에게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줬습니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7개월을 마무리하기까지 마음 편히 설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치게 되고, 도저히 못 하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같은 2기 단원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면,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매니저님, 팀장님, 동료 단원들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강하고 멋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 인터뷰와 해외 인터뷰로 만난 다양한 분들도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셨습니다. 잊지 못할 감동과 교훈을 준 인터뷰의 연속이었고, 인터뷰마다 인터뷰이의 열정을 이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이 달려본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7개월, 대장정의 마무리 그리고 또 다른 시작

황다현

무수한 점들이 찍혀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점묘화. 가까이 봤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광경이 뒤로 물러서면 그림이 한눈에 들어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7개월간의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돌아보기 위해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 저의 감정과 일치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는 동안 느꼈던 기쁨과 슬픔, 좌절과 성취감 더불어, 함께 했던 단원들과의 추억.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어느새 멋진 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강렬하고 뜨거웠던 첫 만남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의 만남은 인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해!'라는 강한 이끌림에 그리고 무엇에 홀린 듯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드는 학교 도서관 한쪽에 앉아 간절한 바람을 꼭꼭 눌러 담아 지원서를 작성하던 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평범했던 대학생활에 작지만, 힘 있는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담기에 부족한 30명 단원의 비영리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단원들을 보고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게 강렬한 첫 발자국을 남기며 시작되었습니다.

인턴으로서의 첫 출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사회 복지법인협회'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십 년 넘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줄곧 지내오다가 인턴생활 시작과 함께 '예비사회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실수를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며 첫 인턴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멘토님이자 실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 그리고 스스로 만든 일명 '실수 노트'에 실수한 점과 배운 점들을 빼곡히 작성해 나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턴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회복지세미나와 권역별 교육을 준비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출장을 다닌 일입니다. 서울, 대전 그리고 제주도로 찾아가 법인 대표님부터 직원분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받은 명함들을 책상 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며 살아있는 비영리현장에 녹아든 기분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5개월간 작게는 사무용품 정리부터 크게는 전국사회복지법인 관련 정보관리와 소식지 만들기 등. 크고 작은 것들을 배워나가 보니 어느새 눈이 내리는 12월 끝자락, 한 단계 성숙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같이 고민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
덕분에요!

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인턴십 수행기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장래희망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작우명

NO를 거꾸로 하면 전진을 의미하는 ON이 된다

함께 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

인턴생활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소셜섹터맵핑과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제 생각에 변화를 일으킨 양대산맥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영리 안에서의 다양한 분야와 모습을 보며 새롭게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30명의 단원과 함께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일점을 맞춰나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지만, 이 시간은 제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던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장의 열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열심히 참여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닮아가고 배워나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미가 가장 컸던 이 두 활동을, 배울 점이 참 많았던 단원들과 함께였기에 가치가 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7개월간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하는 동안, 보기 좋게 포장된 비영리의 모습이 아닌 살아 숨 쉬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비영리 종사자들의 실감 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뜨거웠던 날들을 담아두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이기에도 앞으로의 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고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의 도전, 창조 정신을 계승한 '앙트러프러너십'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사업,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배움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꿈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손을
끌어주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게 만들어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음세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미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핵심 가치

도 전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힘

성 장 배움과 실천을 통한 잠재력의 발휘

나눔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자의식

사업 선택 원칙

**역량
개발**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자생력
복원**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사업 진행 방식

책임성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질적 성과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 사업성과를 추구

투명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

가장 참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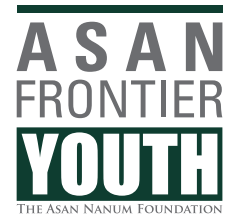
그 참된 식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직접 겪어보고 가장 힘든 일도 직접 해보고, 가장 고생스러운
현장에도 나가서 경험해보고 해야만 생기는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어려운 일을 맡고,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젊을 때 미리미리 쌓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아산(峨山) 정주영

”



발행일	2017년 2월
발행처	아산나눔재단
진행	아산나눔재단 글로벌리더팀 제2기 아산 프론티어 유스 기록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4 1층
전화	02 - 741 - 8220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E-mail	youth@asan-nanum.org

